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10호

코로나19 시대,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고립된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코로나19 시대,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고립된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

김원식 (외교전략연구실)

코로나19라는 미지(未知)의 침입이 전 인류의 일상을 뒤흔든 지도 어느덧 한 해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접촉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다. 영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냈던 재난 서사가 실시간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사망자 수와 경제적 피해는 20세기의 비극적 전쟁들이 남긴 상흔들과도 이미 비교 범위를 넘어섰다.

이 엄청난 상흔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제질서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존 사고 틀에 미친 영향은 아직 미미해만 보인다. 죽음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차이, 즉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반복 재현되던 쌍둥이 빌딩의 불가사의한 붕괴 장면과 병실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주검들 사이의 차이일까? 아니면, 위기 앞에 직면한 인간에게 이기적 각자도생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본능적 반응일 뿐이기 때문일까?

미중 대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종, 성별, 연령, 국적을 가르지 않는 '팬데믹(pandemic)'은 인류의 공동운명에 대한 자각과 전 인류적 대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의 갈등 전선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근본적인 성찰 부재의 상황, 즉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의 틀에 대한 성찰 부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제질서에 대한 홉스적 사고 틀과 그 비극적 숙명

미지의 침입과 위기 앞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안보 추구의 근저에는 국제질서와 안보에 대한 홉스적 사고 틀이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홉스적 사고 틀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국가들 사이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논의로 전이되었다.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무정부 상태와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 추구의 불가피성이라는 현실주의의 사고 틀은 홉스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은 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정확히 재현해 냈다. 첫째, 고립된 주체관, 둘째, 도구적 이성관, 셋째,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것들이다.

첫째, 홉스적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절연된 고독한 근대적 개인들이다. 공동체의 질서와 관계 속에 존재하며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했던 고대적 인간과 대비되는 고립된 근대적 개인의 이러한 특징은 이제 근대국가라는 거대 주체로 전이된다.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이기적 주체들일 뿐이다.

둘째, 이러한 고립된 주체들에게 세계와 타자를 대상화, 객체화하는 도구적 이성은 불가피한 결론이 되었다. 개별 국가들의 생존을 중심으로 타자, 즉 다른 국가들은 지배와 극복의 대상 혹은 생존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와 사회를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복잡한 기계장치로 간주했던 홉스의 기계론적 세계관도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 틀로 전이되었다. 이에 따라 고립된 국가들 사이의 관계, 즉 국제질서는 뉴턴의 근대 역학이 제시하는 외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와 운동 방식을 통해 정의된다. 당구공들의 충돌과 같이 역학적 계산이 가능한 이러한 기계적 국제질서는 단지 개별국가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당연히 국가들 내부 정치체제의 질적 차이는 이러한 국제질서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적 지식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국제관계는 근대 기계론이 설정한 역학적이고 기계적인 운동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근대의 물리학적 환원주의가 국제정치의 환원주의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근대의 도구적 이성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비판의 역사는 짧지 않다. 『계몽의 변증법』 *Dialectic of Enlightenment*(1947)의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고립된 주체와 도구적 이성이 만들어낸 20세기 인류의 비극적 숙명을 역사철학적 단상을 통해 그려나갔다. 근대의 고립된 주체들에게 타자의 도구화가 왜 불가피한지, 도구적 이성과 그에 기초한 근대과학이 세계대전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자기 파괴적 결과를 산출한 경로는 무엇인지를 추적한 저자들은 결국 서구 문명이 추구한 이성의 계몽은 '신화'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비극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했던 오디세우스의 행동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고립된 주체의 도구적 이성은 타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도구로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 파괴해 버리는 비극적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대안으로서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패러다임과 국제질서

이러한 비극적 운명 앞에서 체념할 일이 아니라면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여전히 홉스적 사고 틀을 통해서만 국제질서를 사고할 수밖에 없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인류적 연대와 협력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국가들의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 추구를 '정언명령'으로 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들 사이의 공존과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향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이제 국제질서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 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은 근대의 도구적 이성이 봉착한 아포리아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도구적 이성이 전제하는 '나와 그것'이라는 인식의 틀을 상호주관성, 즉 '나와 너'라는 인식의 틀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어는 인정(Recognition)과 소통(Communication)이다. 타자에 대한 도구화를 강요하는 근대 의식철학의 주체-객체 틀을 벗어나 주체-주체 사이의 인정과 소통 관계를 세계 이해의 근원적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도구적 이성이 봉착한 자기 파괴적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 틀을 전제할 때, 개별국가들 사이의 국제질서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인식의 틀도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제질서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정과 무시, 전략적 이익 추구와 합의 지향적 소통이 경합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은 첫째, 고립된 국가들 사이의 도구적 경쟁 관계를 넘어 국가들 사이의 공존을, 둘째, 도구적 이성이라는 인식 틀을 넘어 국가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을, 셋째, 근대 물리학에 기초한 기계적 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상호주관성의 공간이 갈등과 협력이 경합하는 역동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는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열린 '가능성'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국가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의 가능성을 수용할 때 비로소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다른 인식과 실천의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패러다임과 우리의 외교전략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철학적 전환과 확장은 먼저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코로나19는 물론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신안보 위협들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기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국가들 사이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면하여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연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기존의 미중 대결 구도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중 대결이 냉전 시기 진영 논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필요와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진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중 진영대결의

확산과 양자택일식의 선택 요구는 우리에게 수용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구시대적 진영 논리를 돌파하고 새로운 국제적 협력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홉스적 사고 틀에 결박된다면 진영 논리에 기초한 양자택일식의 선택 요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미중 대결, 나아가서는 국제질서 자체를 제로섬의 힘과 힘의 대결로만 인식하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도 진영 간의 선택, 양자택일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힘과 힘의 대결은 결국 승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결국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원주의적이고 자기 구속적인 상황 인식과 그에 기초한 냉전적 진영 논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의 유연한 외교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모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 수립에서 주변 강대국의 세력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피한 과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외교적 자율성과 유연성은 단지 힘의 변화를 추수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의 새로운 공존과 소통 질서를 제안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대결이 냉전의 초입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우리의 근본적 성찰과 주도적 실천은 더욱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류적 사유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은 언제나 주변자의 몫이었다.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선취하기 위한 사유와 성찰의 노력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